

CR 2004-13



自動車保險市場 動向 및 展望

2004. 11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한
경영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目 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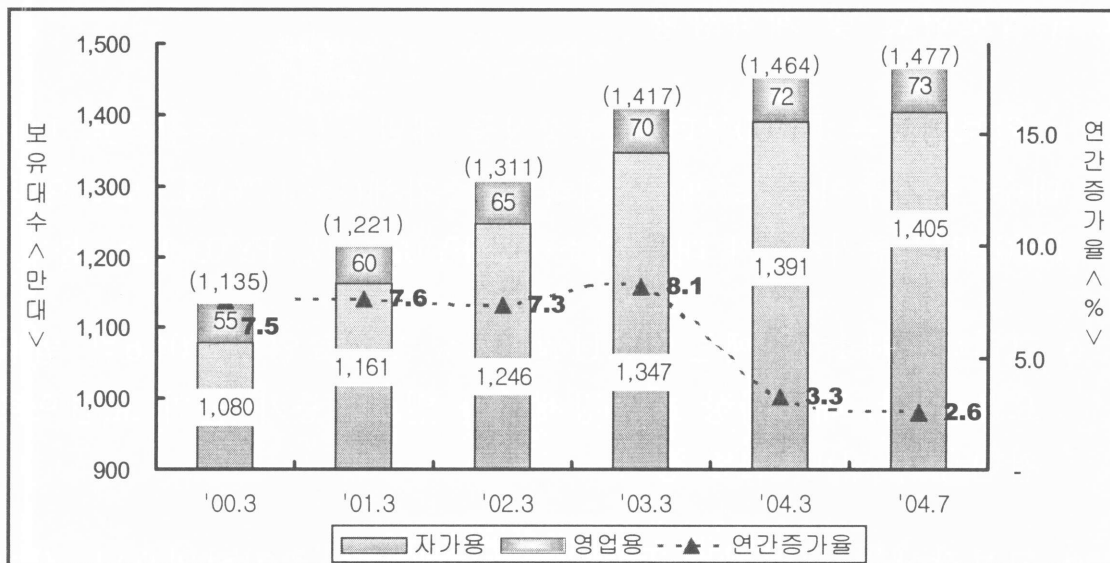
I. 自動車保險市場 現況	1
II. 自動車保險市場 變化	8
III. 自動車保險市場 展望	11
IV. 戰略的 示唆點	14

I. 自動車保險市場 現況

1. 自動車보유대수 및 가입율

- 자동차보유대수는 FY'99부터 연평균 7~8%(90~100만대)의 안정적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FY'03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04.3월 전년대비 3.3%, '04.7월 2.6% 증가)

[그림 1-1]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주 : 이륜차 및 트레일러 제외 기준

- 신차대수도 연평균 약 150만대 수준에서 FY'03 125만대, '04. 4~7월 39만대 등 FY'03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 특히, FY'99부터 다인승 자동차 판매호조가 두드러져 '04.7월 현재 승용차 중 소형차의 구성비는 '00.3월대비 15%(p) 감소한 42%이고, 다인승은 14%(p) 증가한 22%임
- 소/중·대/다인승구성비(%) : '00.3월 57/35/8 → '04.7월 42/36/22

-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책임보험의 경우 96%대에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다가 '03.3월부터 다소 감소하여 94%대를 보이고 있으나, 종합보험은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88%대를 유지
- 책임보험 가입률 100%미만은 '98년 중고차매매업자소유 자동차(상품용)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폐지 등에 따른 것으로,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매각차량 증가로 가입률이 다소 감소

2. 수입보험료 및 계약상황

- 수입보험료는 FY'00부터 고보장상품 개발 및 요율조정으로 보유대수 증가추이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15~17%)를 보였으나, FY'02부터 증가추이가 대폭 감소하여 FY'02 5.9%, FY'03 1.2% 불과
- 그러나 '04.4~7월에는 '03.11월 3.5% 보험료인상, '04.6월 범위요율 인상, 대물배상 가입강제화와 일시납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
- 고보장상품 구성비는 FY'00에 13.2%까지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계속 감소하여 '04.4~7월은 6.8%까지 하락
- 전체수입보험료 중 물적담보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04.4~7월에 42.6%를 차지
- 이는 주로 대형인사사고가 감소하고 물적사고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데 '04.4~7월에는 '05.2월 대물배상 가입강제화 효과도 일부 반영

3. 손해율 및 사고상황

- 손해율은 FY'01, FY'02에 예정손해율(약 72%)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으나 FY'03에는 사고율 증가, 가격 경쟁으로 76.1%까지 증가
 - '04.4~7월에는 '03.11월 요율인상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다소 개선된 72.4%를 나타냄
 - 사고율은 경기침체에 따른 보상심리 고조 및 보유불명사고 청구증가 등으로 급증하다가 '04.4~7월에 다소 완화 추세
- 손해액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적립률은 FY'03까지는 대형 인사 사고의 구성비 감소와 소액물적사고의 구성비 증가로 적립률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 금년 상반기에 들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1-4] 손해율, 사고율, 준비금 적립률

(단위 : %)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04.4~7
손해율	73.0	74.6	68.3	69.3	76.1	72.4
사고율1	4.4	4.8	4.6	4.8	5.3	5.1
사고율2	14.5	17.2	17.4	19.9	21.3	19.5
준비금 적립률	55.9	42.5	40.6	36.8	31.8	32.9

- 주) 1. 사고율1 : 대인 I 사고율
 2. 사고율2 : 자동차보험 증권별 사고율
 3. 준비금적립률 : 지급준비금/손해액

[표 1-1]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및 가입율

(단위 : 억원, %)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04.4~7	연평균 증가율
수입보험료	52,361	61,322	70,769	74,929	75,848	26,940	9.7
전년대비증가율	5.5	17.1	15.4	5.9	1.2	9.4	
고보장상품구성비	9.1	13.2	9.6	7.9	7.8	6.8	
물적담보구성비	22.0	28.3	34.3	37.5	40.3	42.6	16.3

주 : 가입률은 회계연도말 기준이며, 물적담보는 대물 및 차량담보를 말함

□ 대당 수입보험료는 고보장상품 판매호조, 물적담보 보험료 인상 등에 힘입어 FY'00, FY'01 크게 증가하였으나,

○ '02.10월 보험료인하,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하다가 FY'04에는 대물 배상 가입강제화, '03.11월 보험료 인상 등으로 다시 증가

[표 1-2] 대당 수입보험료

(단위 : 천원)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04.4~7
대당 수입보험료	481	527	571	563	548	576

□ 할인할증제도 중 최저할인적용률(40%) 도달기간은 분석에 따르면 12년이 적정하나 현재 7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 고할인계층의 급속한 비대화와 대당 수입보험료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표 1-3] 고할인계층의 구성비

(단위 : %)

적 용 률	FY'99	FY'00	FY'01	FY'02	FY'03	연평균증가율
40%~60%	38.9	44.4	48.1	49.7	52.7	7.8

주 : 40%~60% 적용률이란 60%(최고한도)~4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계층을 말함

- 대인배상 건당손해액은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인한 평균주행속도 감소 영향으로 대형사고가 감소함으로써 감소추세에 있으며,
- 물적담보는 차량가액이 높은 다인승 승용차의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추세이나, 최근의 다인승 승용차 판매 둔화로 '04.4~7월은 다소 감소세

[표 1-5] 건당손해액

(단위 : 천원)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04.4~7
대인담보	4,672	4,623	4,758	4,186	4,027	4,046
물적담보	945	873	854	871	903	865

주 : 물적담보는 대물 및 차량담보

□ 대인배상 항목별 지급보험금

- 대형인사사고 감소로 합의금은 감소하고, 치료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FY'01 이후에는 치료비가 47%선에서 안정화

[표 1-6] 대인배상 항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구성비	합의금	51.4	50.8	53.0	52.9	52.3
	치료비	48.6	49.2	47.0	47.1	47.7

4. 사업비율 및 영업수지

□ 사업비율은 보험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사업비감소 노력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지속하다 '04.4~6월에는 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8.9%를 시현

○ 감소원인에는 보험사 자구노력 이외에도 FY'00 사업비 배분기준의 설정 및 FY'04 배분기준의 재설정·명확화로 보험종목간 사업비의 합리적 배분조치 영향도 포함

[표 1-7]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04.4-6
사업비율	34.0	32.2	30.5	30.4	31.0	28.9

주 : 금융통계월보기준(금융감독원)

○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FY'00~FY'03 기준으로 영업비 62.8%, 손사비 16.0%, 일반관리비 21.2%를 차지

- 경영개선노력으로 일반관리비가 감소하고 사고율 증가로 손사비가 증가하는 추세

[표 1-8] 3대구분별 사업비 구성비

(단위 : %)

구 분	FY'00	FY'01	FY'02	FY'03	4개년평균
영업비	61.1	62.3	64.9	62.8	62.8
손사비	15.2	15.4	16.0	17.4	16.0
일반관리비	23.7	22.3	19.2	19.8	2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영업수지는 과거 만성적 대규모 적자에서 FY'01 이후 손해를 개선으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 FY'03 들어 사고율증가, 태풍 「매미」 등으로 영업수지가 다시 크게 악화

[표 1-9] 영업수지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영업수지	△4,292	△4,717	△87	△149	△5,923

주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보험영업이익 기준

5. 직판상품 판매현황

□ 경기침체에 따라 가입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경향과 온라인 자보사들의 꾸준한 보상망 확대에 따른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현행 직판상품은 모집경비의 일부를 절감한 상품으로 기존 상품보다 가격이 10~15% 저렴

- '04.7월 당월기준 직판상품 수입보험료는 약 483억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6.8%를 차지

- '04.4월 5.2%, 5월 5.9%, 6월 6.2%, 7월 6.8%

- 직판상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일반 45세, 직판 41세),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약자(일반 68%, 직판 71%) 등으로 구성되어
- 상대적으로 보험료 수준이 높은 고요율적용 보험가입자들이 직판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II. 自動車保險市場 變化

1. 가격자유화의 안정적 정착기조

- 자유화 도입 초기에는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연간 수차례의 가격 조정 등 혼란이 있었으나,
 - 가격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잦은 요율조정에 따른 가입자 불만고조도 점차 안정화추세
 - 다만, 최근에는 부부한정특약, 1인한정특약, 30세이상한정특약 등 보험료 절감형 상품개발도 가격경쟁을 대신
- 회사별 자동차보험료는 실적손해액 및 실적사업비 지출상황을 고려하여 산출/결정하는 추세
 - 회사별 평균순보험요율수준은 가격경쟁으로 개발원 참조순보험료율보다 대부분 3~5% 낮은 수준에 분포하였으나,
 - '03.11월 평균 3.5% 인상과 '04.6월 범위요율(평균 1.7%) 인상으로 회사별 요율수준은 전국 표준인 참조순보험요율에 근접한 상태

- '05.1월부터 실적사업비를 반영한 예정기초율 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진입규제완화 및 상품개발자유화로 신설사의 경우 비용우위의 판매채널(TM, CM 등)을 이용하여 시장특화(지역, 직업 등)에 주력하고, 일부 기존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참여
- 직판채널은 초기 도입시 가입자 및 기존 보험사의 혼란을 유발하였으나 최근에는 Off-line에 대응하는 중요한 판매방식의 하나로 인식

2.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은 외환위기로 인해 일시 주춤한 이후, 연 7~8%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경기침체 영향으로 최근 증가세가 매우 둔화
- 최초가입자 구성비 감소에 따라 평균 가입경력요율과 할인할증률 감소 가속화로 대당보험료 감소 및 손해율 악화 여지
- 보험료수입 측면에서 볼 때 할인할증률이 1.1%(p) 감소할 경우 수입보험료는 1.7% 감소로 나타나는 바, 자연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1.7%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

[표 2-1] 개인용 평균율(가입경력, 할인할증률)

구 분	FY'02	FY'03	'04.4~7
가입경력요율	104.4	103.7	103.1
할인할증률	67.5	65.9	64.8

주 : 개인용 기준이며, 가입경력요율은 현행 참조순율기준

- 다만, FY'99이후 FY'03까지 경차 구성비가 감소하고 보험료 규모가 큰 다인승(RV차량 등)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기 대당 보험료 감소규모가 다소 완화되고 있었으나,
- '04년 들어 경기불황·유가인상의 영향으로 경차 판매가 다시 증가추세인 바 대당보험료는 다시 예전의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보유불명 차량사고에 대한 3년간 할인유예조치 시행 및 유가인상 등에 따라 사고율은 '04년 들어 다소 정체 또는 하락 전망

3. 기타 주변환경의 변화

□ 손해율 증가요인

- 대물·차량 보험금의 주류를 이루는 수리비의 기초가 되는 정비수가의 인상요구
- 최근 태풍·폭설 등 거대자연재해 발생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증가 가능성 증대
- 주5일 근무제 시행확대로 레저를 위한 운행증가로 사고발생빈도 증가

□ 손해율 감소요인

- 차명모델별, 지역별 가격자유화 관련 공청회 개최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개선이 가시화

- 제도시행은 지자체의 교통시설 개선, 자동차제작사의 손상성·수리성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기대
- 보유불명자기차량사고 할인할증평가방법 개선과 교통법규위반 할증강화 시행으로 차량담보관련 도덕적위험 감소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인책 활성화
- 기타 최근의 유가인상에 따른 운행감축이 예상되며, 폐지된 카파라치제도의 부활 가능성(지정된 사람만 촬영권을 소유)

Ⅲ. 自動車保險市場 展望

1. 자동차보유대수

- 자동차보유대수는 최근 내수경기 회복지연, 높은 신용불량률 및 청년 실업률,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 FY'04 뿐만 아니라 FY'05에도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쳐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조자동차로 대체시 경차에서 중·대형차 또는 다인승차로 대체하는 경향도 경기부진과 유가인상으로 인해 다소 감소될 전망

[표 3-1] 자동차보유대수

(단위 : 만대)

구 분	개인용	기타	계
FY'03	1,020	444	1,464
FY'04	1,049	453	1,502
FY'05	1,076	464	1,541

2. 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감폭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최근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사의 정책적 측면(기본보험료 및 범위요율 운용수준 결정, 고보장상품 판매주력, 상품포트폴리오 결정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 FY'04 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 '04.6월 범위요율 인상조정, '05.1월 참조순보험요율 인상조정의 영향, 대물배상 가입강제화에 따른 가입률 증가 및 분납가입자의 일시납 전환 등으로
 - 전년대비 8.1% 증가된 82,025억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 FY'05의 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과 '05.1월 보험료 조정률에 따라 결정되는 바,
 - '05.1월 1%수준의 요율인상시에는 전년대비 3.5% 증가된 84,866억원으로 예상

[표 3-2]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보험료조정폭	△3%	△1%	0%	1%	3%
FY'03	75,848				
FY'04	81,229	81,627	81,826	82,025	82,423
증가율	7.1%	7.6%	7.9%	8.1%	8.7%
FY'05	81,592	83,229	84,047	84,866	86,502
증가율	0.4%	2.0%	2.7%	3.5%	4.9%

주 : 보험료 조정폭은 '05.1월 조정률 기준

3. 손해율

- FY'04 손해율은 '04.8월 약관지급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03.11월 요율조정 및 '04.6월 범위요율 인상 효과로 다소 개선될 전망
 - 또한, 보유불명자기차량사고 할인할증 평가방법 개선 및 범정부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73.2%의 손해율이 예상됨
- FY'05는 '05.1월 요율조정이 1%내외일 경우 평균할인할증율의 하락과 대당손해액 규모 증가 등과 연계되어 73.7%로 예상

[표 3-3] 손해율

보험료조정폭	△3%	△1%	0%	1%	3%
FY'03	76.1%				
FY'04	73.3%	73.2%	73.2%	73.2%	73.1%
FY'05	75.9%	74.8%	74.3%	73.7%	72.7%

주 : 보험료 조정폭은 '05.1월 조정률 기준

3. 합산비율

- FY'04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손해율 개선 및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관련 경영 개선효과, 배분기준의 변경효과 등이 반영되어
 - 100% 수준을 다소 초과하는 102.1%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FY'05는 102.6%로 전망

- 다만, 보험사간 M/S 확보경쟁으로 과도한 사업비지출 및 과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합산비율은 더욱 악화될 전망

[표 3-4] 합산비율

보험료조정폭	△3%	△1%	0%	1%	3%
FY'03	107.1%				
FY'04	102.2%	102.1%	102.1%	102.1%	102.0%
FY'05	104.8%	103.7%	103.2%	102.6%	101.6%

주 : FY'04, FY'05 합산비율은 '04.4~6월 실적사업비율 28.9% 기준으로 계산

IV. 戰略的 示唆點

1. 경영전략 측면

□ 경기침체기의 경영내실화 전략 필요

- '90년대 중반까지 연 15%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자동차보유대수가 외환위기 이후에도 연 7~8%의 고성장을 유지하였으나,
 - 최근의 경기침체,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해 연 2~3%의 저성장으로 전환
- 저성장기조와 손해율악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전략은 상당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감독당국은 지급준비금 적정 적립을 규제하기 위해 년 4회씩 준비금 적정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어 수익성을 중시하는 보다 내실있는 경영전략이 필요

□ 사업비 절감과 우량가입자 인수 사이의 trade off 전략적 선택

○ '05.1월부터 회사별 실적 사업비 지출 규모를 반영한 부가보
험료 산출이 본격화

- 손해율이 낮은 우량 가입자 인수를 위해서는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인수를 기피하는 불량가입자 인수에는 사업비 지
출이 감소

- 따라서 우·불량 가입자별로 나타나는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trade off선을 파악하고 동 선상에서 회사의 경쟁 전략을 수
립할 필요

2. 상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측면

□ 선진 효율산출능력 개발 및 가격/언더라이팅 기법의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위험세분화 및 변수간 상호연관효과를 감안한 변수별 적정 요
율상대도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집적과 Data Mining 등 분석·
산출통계기법 강화도 필요

□ 보장강화 또는 맞춤형 상품 등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한
상품개발 필요

○ 고보장상품으로 구성된 회사별 대표브랜드 상품의 출현은 기존
타상품과의 차별화 및 프리미엄급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에 기여하였지만,

- 향후 이러한 상품개발 강화에 더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도록 독립특약을 조립하는 형태의 상품개발도 필요

3. 손해율관리 측면

- 보험가입자 그룹 세분화 등 합리적 언더라이팅 기법을 개발하여 우량고객 선별 및 적극 인수를 위한 제반 노력 필요
 - 현행 요율체계내에서의 가입자 세분화이외에 신용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
- 물적담보 구성비가 증가하여 그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무엇보다도 물적담보 보험금의 주요항목인 정비수가의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
 - 정비수가 5, 10, 15% 인상시 자보전체 손해율 0.8, 1.6, 2.4% 상승
 - 또한 물적사고담당 보상직원의 교육강화, 정비공장의 효율적 관리·유대 및 부품가격 안정화 유도의 편승수리 억제가 절실
- 인적담보중 합의금은 감소하고 치료비 구성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보수가와 의료수가 단일화 등 자보수가 인상 억제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성 증대
 - 또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조기합의 및 종결을 유도하도록 보상직원에 대한 교육투자 배가 및 손해율 관리기법 공유 필요

-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 및 정보공유와 보험사 인수시 철저한 조사의 제도화로 보험사기의 사전예방 필요
- 모집조직에 대한 인수교육 및 성과반영 보수체계의 강화로 보험료 적용의 철저도모도 필요

4. 제도개선 및 사고감소 측면

- '04.10.20 공청회 개최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

공청회 결과 요약

- 10월 20일 지역별·차명모델별 가격자유화 및 할인할증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학계, 언론계,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제도개선 과제별 의견 >

- 지역별 가격자유화 : 손해를 높은 지자체 대표 등 일부 제외하고 많은 토론자들이 찬성하는 편이며, 지자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제시가 다수
- 차명모델별 가격자유화 : 대체로 찬성의견으로서 가입자별 보험료 형평부담이라는 1차적 목적외의 부품가격 인하, 차량설계개선이라는 2차적 목적도 적기에 달성되도록 조기시행 요구
- 할인할증 제도개선 : 최저할인을 도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나, 이로 인한 효과가 전체 가입자들에게 적정히 분배되도록 요구

- 상기 제도개선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형평부담에, 장기적으로는 사고율과 손해율 감소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므로,
 - 공청회 결과를 참조하여 각 제도별로 시행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입자에 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할 수 있는 등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세부시행방안을 모색
 - 공청회 개최 등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바 제도개선 과제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보험회사는 제반 준비 필요
- 통상 교통사고는 교통법규위반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교통법규준수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통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율 감소 유도
- 금번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강화와 보유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 평가방법 개선으로 일부 사고율 감소효과가 예상되나,
 - 지역별 가격자유화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교통여건 개선, 법규위반 단속강화 등 자구노력을 이끌어낼 필요

5. 기타

- 특정지역 및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인수거절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계약자 오해가 높아진 상황
- 제도개선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업계 노력의 일환인 바 제도개선 내용 및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소비자 신뢰회복에 노력

□ 사업비절감을 위해 보험회사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

- 소액물적사고 등의 경우 우선 사고조사회사 지정제도 등의 시행으로 손해사정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상호 협조체제 구축도 고려할 필요.(끝)

CEO Report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발 행 일	2004년 11월	일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나 해 인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68-4000	
인 쇄 소	(주) 유성사	
	대표전화 2285-0070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상품팀(☎368-4178)으로 하여 주십시오.